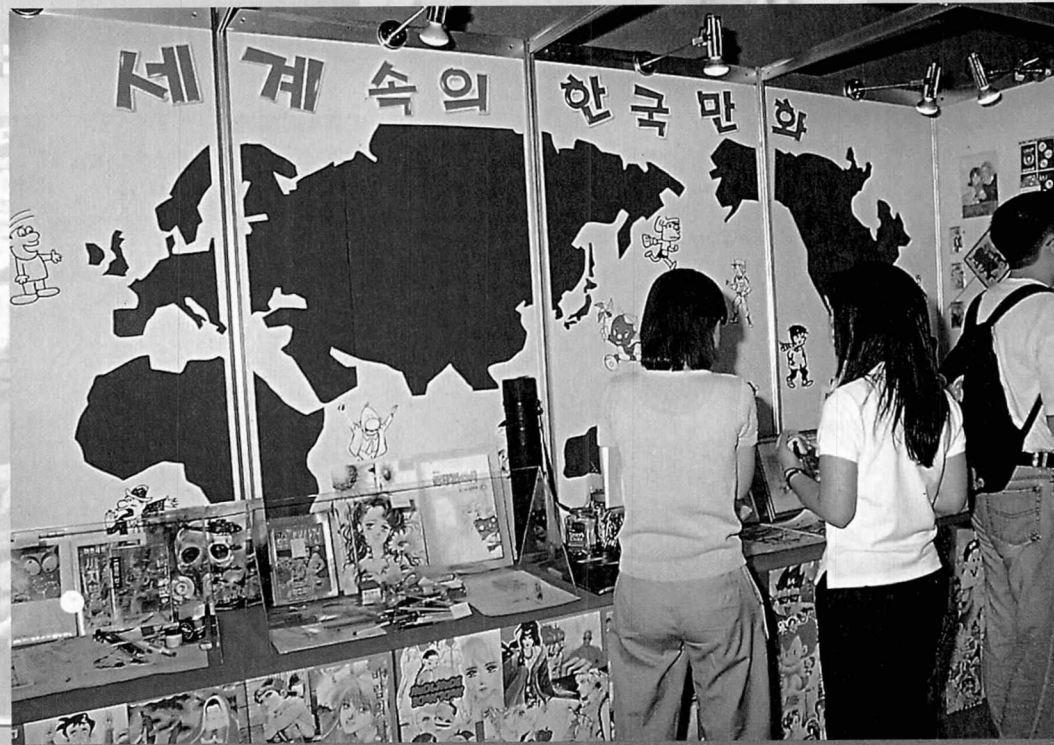


책과 사람이 만나 이룬 문화마당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열린 '99 서울국제도서전은 책과 문화와 사람이 만나 어우러진 책잔치였다. 지난해 IMF체제의 깊은 상처를 딛고 마련한 이번 도서전은 단순히 책을 전시·판매하는 기능을 넘어 책이 문화의 첨병에서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다. 각 출판사들은 자사의 출판역량을 총집결해 독자와 만났으며, 독자들은 책의 숲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감동을 만나는 즐거운 체험에 기꺼이 다리품을 팔았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향하는 길목에서 열린 이번 도서전은 우리 출판문화가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됐다.



▲ 한국만화가협회가 주관한 '세계 속의 한국만화전'. 이미지와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에 새로운 부가치 산업으로 떠오른 한국만화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만화와 관련된 캐릭터·애니메이션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 전시기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SBS라디오 프로그램 <책하고 놀자> 스튜디오 시인 김갑수씨가 진행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김홍신·은희경·이문열씨 등 인기작가가 출현해 자신들의 작품세계를 말했다. 생방송으로 도서전의 생생한 모습을 전했다.



▲ 나춘호 출협 회장이 개막식에 참가한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국제도서전을 안내하고 있다. 출판과 독서는 지역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듯 김종리는 국내 출판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일본의 한 출판사 부스에서 저작권 상담에 열중하는 모습. 출판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남으로써 시작된다. 이번 서울 도서전은 책과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만남의 장이었다.

책이 열어야만 오천년, 책이 열어야만 새천년

▶ 특별기획전으로 마련된 책으로 열어 온 오천년, 책이 열어야만 새 천년 전, 민족 문화의 정수로서 책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으로써 책이 나갈 길을 기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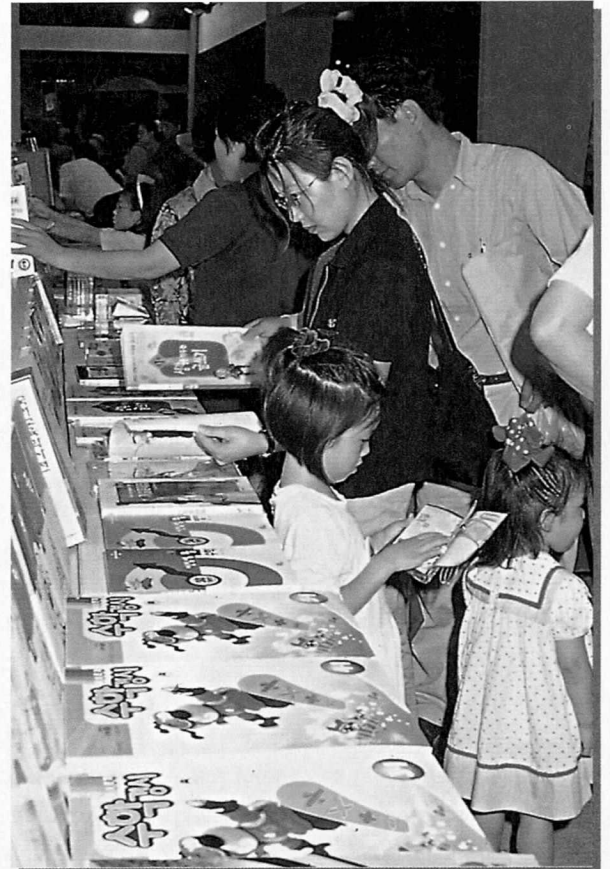
◀ 한국출판미술협회가 주관한 '책 읽는 모습들' 원서·그림·원화 전시회장. 세상에서 책 읽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드물다. 때론 진지하게 때론 익살스럽고 개성 있게 그려진 책 읽는 모습이 전시돼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다.



◀ 엄마의 손을 잡고 전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책을 펼쳐보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책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마법의 문과 같다. 더욱 다채롭고 아름다운 심성을 가꿔줄 책들이 미래의 새싹들을 둘러싸고 있다.



◀ 외국에서 번역출판된 우리책과 국내에서 외국어로 발행된 도서 등 600여종을 전시한 '우리 책, 해외 출판 도서전'.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우수한 문화적 자산이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아동도서 부스에서 어머니와 아이가 책을 열심히 보고 있다. 아이는 어머니 못지 않게 진지하다. 아이들은 한참 자연과 더불어 뛰어놀 때기도 하지만 또한 책읽기의 즐거움을 터득해가는 시기기도 하다. 그들을 책으로 이끄는 것은 어른의 몫이다.



▶ 국제도서전에 처음 참가한 '출판저널' 부스 폭격 높은 정통 서평지로서 《출판저널》이 걸어온 길과 출판문화에서 차지하는 가치를 널리 알렸다. 책과 글로만 만나던 독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